

7-7-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레위기 2:1-11

말씀제목: 그리스도의 신부를 휴거의 날까지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째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신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처럼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날인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레위기 2 장은 음식 제사(Meat Offering)에 관한 말씀이며 불로 태운다 해서 개역 성경에는 “화제”로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하는 정도로만 전하지만 레위기 1 장에서 5 장까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죽음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식 제사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마치 고운 가루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밀가루가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꺼끌꺼끌한 돌이나 티가 조금도 섞이지 않았습니까. 반죽을 해도 빗는대로 아무 저항 없이 뭉치지 않고

골고루 퍼지는 것이 마치 우리 주님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섞인 것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대로 늘 같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빈틈 없이 어디에나 고르게 퍼져 있는 고운 가루 안의 세계는 어디에나 차고 넘치는 충만하심의 충만한 은혜 세계가 아닙니까? 이리 쏠리지도 않고 저리 쏠리지도 않는 온전하신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고, “꺼끌꺼끌하고 거칠고 돌도 섞여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죽어 그분처럼 고운 가루와도 같은 티 하나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운 가루”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야 할 믿음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종교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돌과 티를 모두 제거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운가루가 불로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불”은 “시험, 고난, 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그 보들보들하신 분을 불로 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은 대체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에다 피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퍼지는 향기입니다. 주님의 향기는 순수하고 거룩한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향기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최악의 향기는 겉으로만 향기롭지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으므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태우라는 것은 죄없는 주님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주님 안에는 진리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무엇이 섞이면 이미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서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묶여서 삽니다.

다섯 번째로, 꿀이 나옵니다.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은 자연적인 당입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꿀, 하나님의 은혜는 육신적인 달콤함 하고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농담이나 잡담을 하면서 껄껄 웃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기뻐하신 것은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있어도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꿀과 벌집 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을 육신적으로 먹는 것보다, 말씀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더 달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을 섞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기름을 온 몸에 바르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화덕”**과 **“철판”**이 나옵니다. 음식을 화덕과 철판에 구웠습니다. 화덕은 속이 뜨겁고 철판은 겉이 뜨겁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화덕같은 고난”**과 **“철판같은 고난”**의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에 주님이 얼마나 타셨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본 마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겜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겜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가더라.”(마 27:27-31)

주님께서서는 화덕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는 내적 고난을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달으면 불평할게 없지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아니까, 삶 속에서 뭘 좀 참고 견딜만한 믿음이 없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몸이 어떻게 드러졌는지 아는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속 마음이 화덕처럼 타오르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철판같은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화덕이 내적 고난이라면 철판은 주님께서 받으신 외적 고난을 말합니다. 주님의 육체가 찢기고 오그라드는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외적인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님께서서는 고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몸은 철판 위에 바베큐처럼 타버리시고 오그라들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물에 삼지 말고 불에 구워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햇볕의 뜨거움 속에서 심한 화상을 입으시고 온 몸이 오그라들어 마치 바베큐처럼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현재 우리의 편안한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시다. 그의 겜옷은 로마 병사들이 나누어 가져갔고 속옷은 예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속옷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 장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주님, 즉 우리의 죄가 부각된 것이고 오늘 2 장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통 속에 시험 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롬 12:1)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살전 4:3)

아멘! 할렐루야!